

효성, 고객중심 경영 한층 강화!

일본 컨설팅기업의 섬유 트렌드 세미나 ... 고객초청 행사 잇따라

효성이 최근 잇따라 고객 초청 행사를 여는 등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효성은 5월 영남지역 행사에 이어 6월25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경인지역 주요 고객사 약 200곳을 초청한 가운데 신소재·신제품 설명회와 함께 <Next Season Textile Trend - 마켓의 시점에서 본 소재 정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효성이 자체개발한 스판텍스와 나일론, Polyester 신제품과 신소재에 대한 설명회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섬유기업들의 상품개발 노하우를 소개하는 세미나도 열린다.

또 일본의 섬유소재 컨설팅기업인 인터플랜의 세미나에서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선보이는 기업들의 가격 산정, 시장 리서치, 판촉프로모션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자리를 가진다.

효성은 2003년 경영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 행사를 강화함으로써 침체된 시장환경에 맞서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25>